

중국팀

중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법제도 정비

- 12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이하 ‘조례’)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이하 ‘목록’)을 시행하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¹⁾
- 이번 조례는 기존 의견수렴안(2022년)보다 △모니터링 목록 제도 △최종용도 및 최종 수요자 검증을 추가하였으며 목록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출통제 품목 관리를 일원화함.
 - (수출업체 관리 강화)모니터링 목록을 도입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됨.
 - 수출업체의 의무를 강화하여 최종용도 및 최종 수요자 검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함.
 - 수출업체가 중국 상무부 검사에 불응하거나 최종용도 또는 최종 수요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출업체를 모니터링 목록에 추가하여 일시적인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관리 일원화) 산업별 또는 부처별로 실시해오던 수출통제 품목을 10대 주요 산업으로 구분하고 다섯 자리 코드를 부여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²⁾

표 1.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의 주요 내용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	규제 범위	- 군·민 이중용도 관련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를 포함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제조한 군·민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
	주요 내용	- 수출 허가 프로세스 규범화 - 수출 정보를 핵심과 비핵심요소로 분류하고, 핵심 요소(품목 유형, 수출국 또는 지역, 최종 사용자, 최종용도) 유형별 수출허가증 변경, 재발급 절차를 명문화 - 최종사용자와 용도, 수출업자 및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제 목록’ 보다 유연하게 관리하는 ‘모니터링 목록’ 제도 도입 - 수출업체는 수출 허가서에 명시된 범위, 조건 및 유효 기간 내에 이중 용도 품목을 수출해야 하며 운송, 도착, 설치 및 사용을 포함한 실제 수출 세부 정보를 보고 - 수출업체는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개발
	수출 허가 요건	-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를 위해 수입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래 최종 사용자에게 다시 수출되는 품목 △수리, 테스트 또는 검사를 위해 수출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다시 수입되는 품목 △전시회에 전시된 품목의 수출 및 수입 △수리용 민간 항공기 부품과 예비 부품 △기타 중국 상무부 허가한 사항일 경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제 범위	- 10대 주요 산업 부문과 5개 범주: △소재·부품·장비, 화학 제품, 미생물 및 독소 △재료 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 전자 △선박 △항공우주 △기타 물품 등 분야의 700 여개 △시스템·장비·부품△테스트 △검사 및 생산 장비 △소프트웨어△기술을 포함.

1) 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2024.9.30.),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的公告(2024.11.15.)

2) 「중화인민공화국 핵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미사일 및 관련 품목과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 이중용도 품목 및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 관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와 기술 수출 관리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감시 화학물질 관리 조례」 및 그 하위 행정법규를 폐지하고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으로 대체됨.

목록	
----	--

자료: 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2024.9.30.), 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的公告(2024.11.15.)

- 중국 정부는 2020년 「수출통제법」을 발표한 이래 관련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국가 안보, 국제 규범, 기술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 품목을 조정해옴.
-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상위 법 부재, 법적 체계 불완전, 첨단 기술 관련 규정 미비 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발효
 -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법」 시행 이전에도 「대외무역법」, 「해관법」, 「군수품 수출관리조례」, 「핵 수출통제 조례」 등을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체계적인 법제도 구축을 위해 수출통제 및 관리 분야를 총괄하는 「수출통제법」을 제정함.³⁾
 - 「수출통제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며 선별적인 조치를 취해왔음.
 - 중국 당국의 관련 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이중용도 무인 항공기, 과염소산칼륨, 갈륨 및 게르마늄, 흑연, 상용암호 관련 품목 등 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해왔음.⁴⁾
- 중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술 경쟁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비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 정부와 기업은 하위 법규 제정 동향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핵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할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산업, 기술, 무역, 안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록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⁵⁾
 - 이번 목록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핵심광물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외교정책 또는 산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하위 행정법규 제정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중국 내 외국인으로 이전이 수출통제 범위 해당하는지 여부,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제도 간의 상충 등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여 관련 사항은 중국 당국에 문의가 필요함.

이효진 전문연구원

3) 현상백 외(2021) 「미중갈등 시대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와 시사점」 p.233

4) 관련 수출통제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목록」으로 통합됨.

5) 商务部新闻发言人就公布《中华人民共和国两用物项出口管制清单》应询答记者问(2024.11.15.)